

연해주 이상설 선생의 유적 답사기



이 동 길 총무이사
(사)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 강동 · 송파부지회장, 통일회원

2008. 5.28 (수요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러시아 연해주 아르썬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비가 내린 흔적과 날이 흐려 있었다.

일행 5명(KBS 촬영팀 2명과 부산일보기자 1명, 비료용 이탄(泥炭)지 답사 1명, 이상설 선생 유적답사 1명 등)은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 안내로 승용차 2대로 공항에서 50여km 떨어진 『블라디보스톡』 시내 현대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곳은 극동아시아 연해주의 주도(主都)인 『블라디보스톡(동방을 정복하라는 뜻이라고 함)』은 1880년 정식도시로 승격했고, 1930년 소비에트정부가 이곳을 태평양함대의 모항지정 이후 오늘날까지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의 소재로 1991년까지 외국인 통제를 하였다가, 현재는 한국 · 일본 · 인도 · 베트남 · 미국 등 극동 진출 기업들을 수용하는 개방과 더불어 한국의 부산항과 일본 · 중국 · 미국 등 항구 도시들과도 자매결연을 맺어 경제 ·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고 오락가락 하였다. 이곳에 극동대학, 한국학대학, 한국문화원 및 박물관을 답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신한촌(新韓村)만을 답사하였다.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과 우수리스크(Ussuriysk)에는 한국박물관이 없으며, 박물관내 한국관도 없다고 한다. 이곳 신한촌은 당시 험준한 산에 집터와 밭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어려운 곳에서 개간하며 단결하여 이곳 신한촌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연해주 한인의 이주과정을 보면 1858년 이후 한인들은 근면 성실하여 러시아 정부에서도 호의적이며 귀화를 받아주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제 강점기에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국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기 용이했다고 한다. 이 지역을 길이 후손에게 독립운동의 유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한국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 표석을 만들어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37년에 강제이주 되어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 후손들은 현 거주지를 고향으로 여기고 연해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한국도 하바로프스크 유대인자치주와 같이 연해주 내에 신한촌 자치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번영했던 신한촌에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해외민족연구소에서 세운 기념

물과 탑문이 옛터를 지키고 있다.

기념문을 탐독하고 사진 몇 장 찍고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다.

신한촌 기념탑(블라디보스톡)

5월 30일 (금요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우스리스크』수위푼(水豊)강변에 있는 이상설

연해주(沿海州) 신한촌 기념탑 기념문

『민족의 최고 가치는 독립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 선정이며 청사에 빛난다. 신한촌은 그 성전의 요람으로 선열들의 열과 땀이 깃들고 한 민족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곳이다.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국권이 침략 당하자 국내외의 지식인들은 신한촌에 결집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필사의 결의를 다졌다. 성명회와 권업회 결성, 한민학교 설립, 신문발간, 13도의 군 창설 등으로 민족역량을 배양하였고, 1919년에는 망명정부(대한국민회의)를 수립하여 대일 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한 민족은 1937년 불행하게도 중앙아시아에 흩어지게 되고 신한촌은 폐허가 되었다. 이에 해외한민족연구소는 3.1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송고한 뉘를 기리고 재러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위로하며 후손들에게 역사인식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기념탑을 세우다.』

1999년 8월 15일
한국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

유허비문



▲ 이상설 선생 유허비(우스리스크)

『보재 이상설 선생은 1870년 한국 충청북도 진천에서 탄생하여 1917년 연해주 우수리스크 송황령에서 서거한 한국독립운동의 지도자이다. 1907년 7월에는 광무황제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위종을 대동하고 사행하여 한국독립을 주장

하다. 이어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하여 조국독립운동에 헌신 중 순국하다.』 유언에 따라 화장하고 그 재를 이곳 수위푼 강물에 뿌리다.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정부에 협조를 얻어 이 비를 세우다(뒷면에는 러시아어로 비문이 되어 있다).

칼럼

선생의 유허비에 갔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시조(始祖)이신 이상설선생의 유허비가 선생이 활동하시던 그 넓은 연해주(남한의 1.7배) 하바로프스크(우리나라의 4배) 땅에 우뚝 지키고 있으니 감회와 가슴 벅참으로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곳은 관리하는 사람 없이 참배하는 분들이 주변청소를 하며 돌보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께 꽃다발을 바치고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신 위국헌신의 뜻을 참배하는 모든 이에게 길이 간직하게 하여주기를 기원했다.

2008년 5월 31일 (토요일)

오늘은 귀국하는 날이다.

스파스크달리니驛(항카호 좌측) 근처 안내해준 고려인(중아시아에서 이주한 여성분)의 어려운 생활을 보니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러나 혼자라는 60이 넘는 고려인은 자기 집에도 배움 교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으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한 것을 알아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비행장과의 거리가 있어 시간에 쫓기어 서운한 마음 가슴 한쪽에 남아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다.

블라디보스톡 비행장에 비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는 길에 우정마을도 방문하지 못하고 달려서 비행장 탑승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끝. ☺

전국 농생명 관련 학생 여러분의 입회를 환영합니다.

- 역사 :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곳곳이 맥을 이어온 50년 전통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입니다.
- 주요사업개요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농촌의 정보화 교육, 농업·농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류, 농업관련 각종 교육사업,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 시범교육장 운영
- 회원가입절차 : 협회 교육 이수를 통한 가입(지방농민대학 포함)
 - 일반회원 가입비 : 입회비 5,000원 연회비 10,000원
 - 평생회원 가입비 : 100,000원
- ※ 가입신청서 양식 ⇒ 우편발송(주소명기)
- 가입비납부 : 농협 : 067-01-224657 / 우체국 : 012211-01-000320 / 제일은행 : 327-20-016036 / 예금주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가입혜택 : 회보발송,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안내